CSRI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Chungcheongbuk-do Disaster Safety Research Institute

2021 10 vol.66

재난안전 Brief

이슈 Brief

충북 주요 자연재난 발생현황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이슈 Brief ····· 01

충북 주요 자연재난 발생현황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 11

- 충북도, 기후변화 대응 녹색공간 확대한다 ····· 11
- 충북소방본부, 전통시장에 Safe Guide 추가 배치 ····· 12
- 영동군, 재난형 가축질병 철통방어 '청정지역 사수' ····· 12
- 충북소방본부, 본격적인 가을철...'산악사고 주의' ····· 13
- 충북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14
- "폭우피해 걱정 없어요"…진천군, 폭우 대응시스템 구축 ····· 15
- 충북도, 한글날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진 ····· 17
- 충북도,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 ····· 17
- 충북 119특수구조단, 특별 산악구조 훈련 실시 ····· 18
- 영동소방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 18
- 청주시, 도심지 소로에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 ····· 19
- 충북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 19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 20

-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20
-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21
- 가을철 야외활동,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 ····· 23
-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위한 최신 비상대응 정보 제공 ····· 24
-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 25
-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26
-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 27
-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 28
- 주말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 행안부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30
- 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 ····· 31
- 여가부, 성범죄자알림e 지도 정확성 높인다 ····· 32
- 정부서울청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33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 34

- 충남소방 '소방헬기 119진화대' 본격 운영 ····· 34
- 제주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점검의 날 운영 ····· 35
-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구로형 스마트폴' 설치 ····· 36
- 서울시, 가까이 가면 밝아지는 '스마트보안등' 설치한다 ····· 37
- 제주드론통합운영센터, 11월 정식 출범...'안전 플랫폼' 구축' ····· 38
- 인천시, 교차로 등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 39
- 고양시, 위급상황 때 긴급 대피 '폴리스박스' 4곳 설치 ····· 40
- 중랑구,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운영 시작 ····· 40
- 울주소방서,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 41
- "밤길 안전 확보"…삼척시 LED 로고젝터 추가 설치 ····· 41
- 부산소방 '코로나 청정 119캠페인' 스타트…전국처음 ····· 42
- 대구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42

▮ 집필진

배 민 기 센 터 장 (043-220-1127)

최 신 실 연 구 원 (043-220-1118)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주 소 |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420호

홈페이지 | www.cri.re.kr/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sri_cri

재난안전 Brief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주요 재난안전 정책동향을 시의 적절하게 적시하고
그에 따른 충청북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월간지로서 충청북도 및 충북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연구원 홈페이지 (www.cri.re.kr)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 Brief」

충북 주요 자연재난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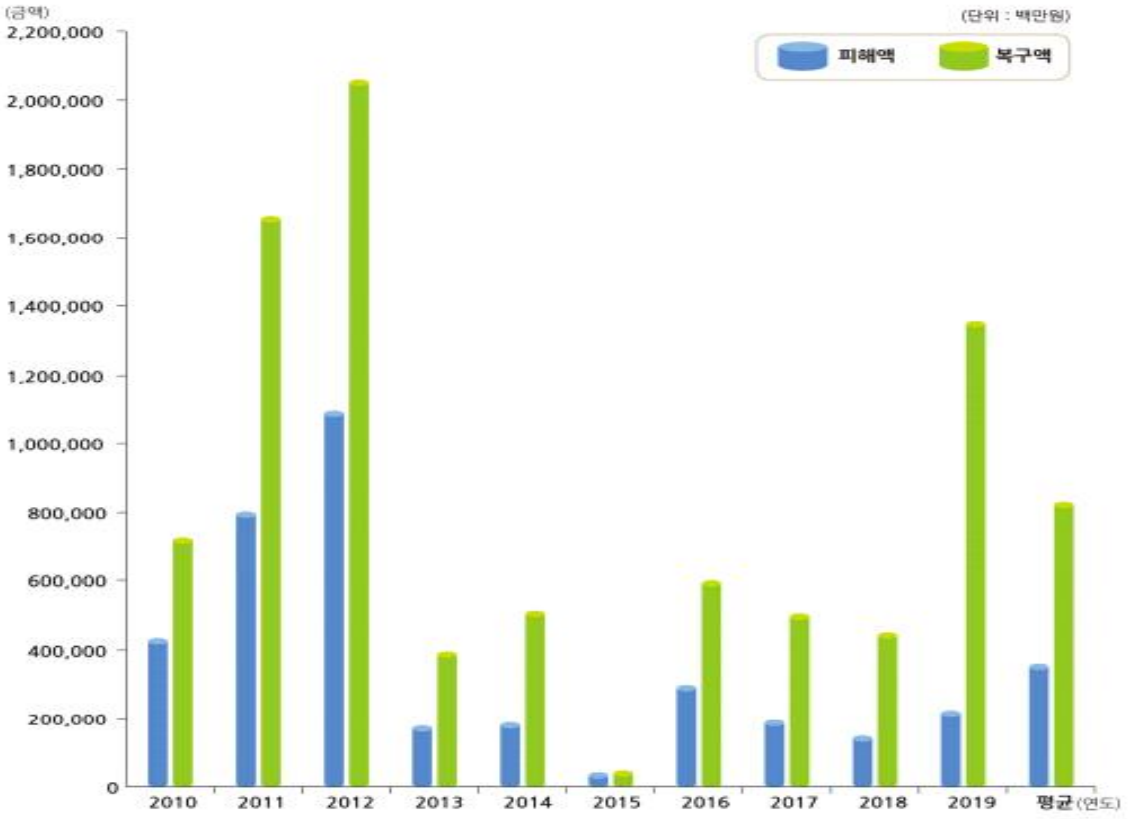
1. 자연재난 개요[1)]

1) 자연재난의 의미

■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 평균('10-'19) 인명피해(사망 · 실종)는 23명, 재산피해는 3,527억원(각 당해연도 가격기준임)에 달함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즉 자연재해는 인간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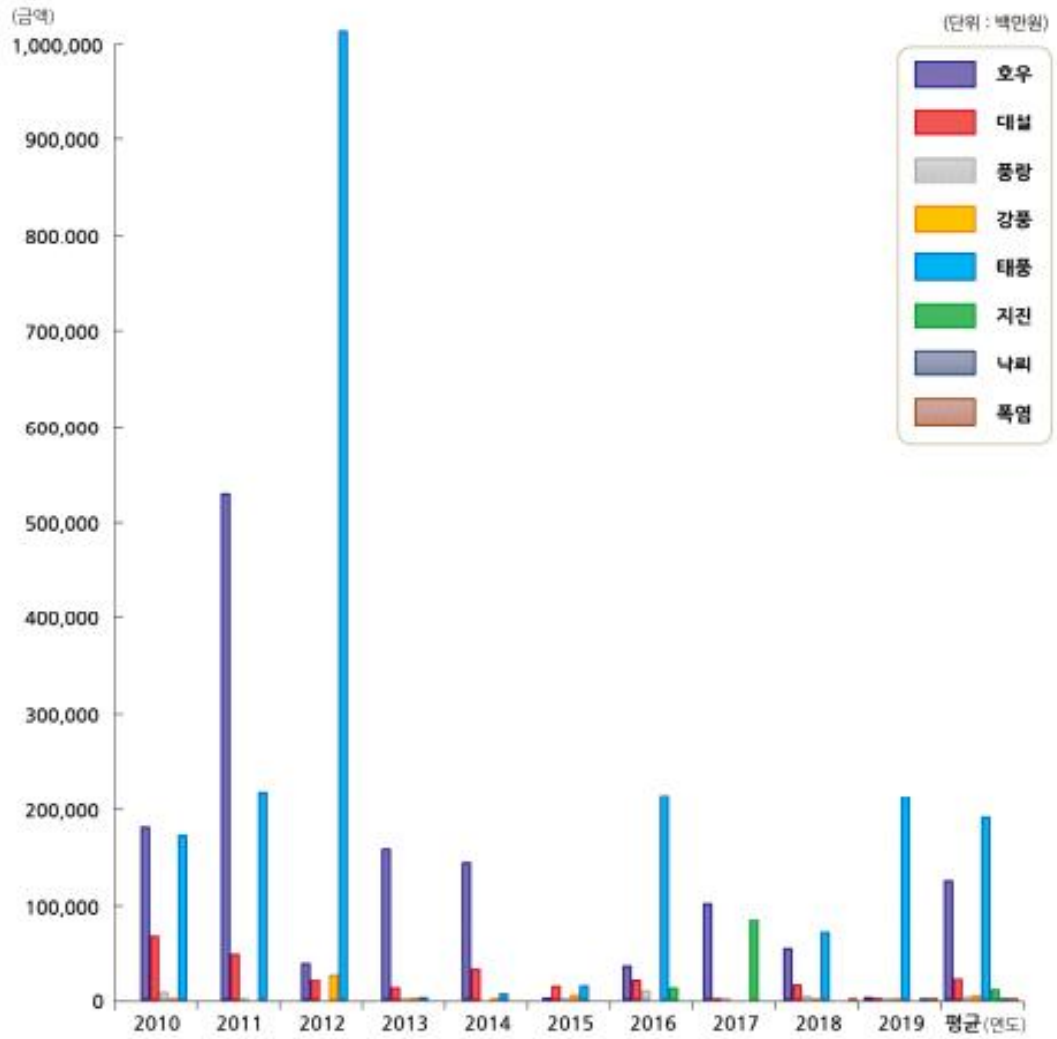
[표 9]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피해액	426,782	794,200	1,089,210	172,137	180,019	31,862	288,362	187,302	141,284	216,225	352,738
복구액	715,406	1,654,029	2,053,176	386,559	507,065	38,122	590,607	499,672	443,270	1,348,759	823,666

※ 각 당해연도 가격 기준

1) 출처 : 행정안전부「자연재해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2018 재해연보」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표 12]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호우	180,762	527,611	38,431	158,129	142,212	1,213	35,887	101,592	53,800	1,651	124,129
대설	66,303	47,976	20,352	11,342	32,421	13,021	18,689	83	14,032	671	22,489
풍랑	7,036	299		44		333	8,302	605	2,823	474	1,991
강풍	174		26,712	932	95	3,891			6	7	3,182
태풍	172,507	218,314	1,003,715	1,690	5,291	13,404	214,464		70,616	212,778	191,278
지진							11,020	85,022			9,604
낙뢰										26	2.6
폭염									7	618	62.5
계	426,782	794,200	1,089,210	172,137	180,019	31,862	288,362	187,302	141,284	216,225	352,738

※ 각 당해연도 가격 기준

2) 자연재난의 종류



출처 :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

■ 태풍 :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

■ 홍수 : 대체로 단기간의 집중호우나 장기간 지속되는 강수의 결과로 발생하여 하천이 범람해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 호우 : 일반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하며,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을 강우 또는 집중호우라고 하고, 반드시 단시간에 한하지 않고 총강수량이 많은 것을 호우라고 하며 홍수 및 침수 등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정도의 많은 비를 의미

■ 폭풍·해일 : 태풍이나 심한 폭풍, 또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안에서 해수면이 이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

■ 폭설 :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

- 기상청의 대설 특보기준을 보면 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새로 쌓인 눈)이 5cm이상 예상될 때 발령

■ 폭염 :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되는 것으로 습도도 높은 경우 불쾌감을 주며,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일사병, 열사병 및 호흡기 질환 등 온열 질환을 유도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자연재해

- 한낮의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섭씨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발령

■ 지진 : 지구 내부 어느 지점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생긴 파동, 즉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전해져 지반을 진동시키는 것

■ 가뭄 : 비가 보통 때에 비해 오랫동안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현상

■ 냉해·동해 : 여름철의 이상 저온이나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입는 피해/겨울철 식물, 특히 각종 작물의 서리에 의한 피해

■ 우박 : 주로 적란운에서 내리는 지름 5mm 정도의 얼음 또는 얼음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

■ 서리 : 기온이 어는점 아래로 내려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면이나 주변 물체에 부착된 얼음 결정

■ 한해·병충해 : 겨울철의 저온 때문에 월동 중인 농작물에 일어나는 해/병이나 해충에 의해 작물이 받는 피해

■ 이상조류 : 호수, 하천 또는 연못의 표면에 사는 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하는 현상

■ 적조현상 : 연안 지역에서 해수의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수생 생물에 큰 피해를 주는 현상

2. 충북 주요 자연재난 발생현황

1) 조사방법 및 출처

■ 충북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의 발생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풍수해, 폭염,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로 세부 재난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통계자료를 조사함

〈세부유형 별 조사방법 및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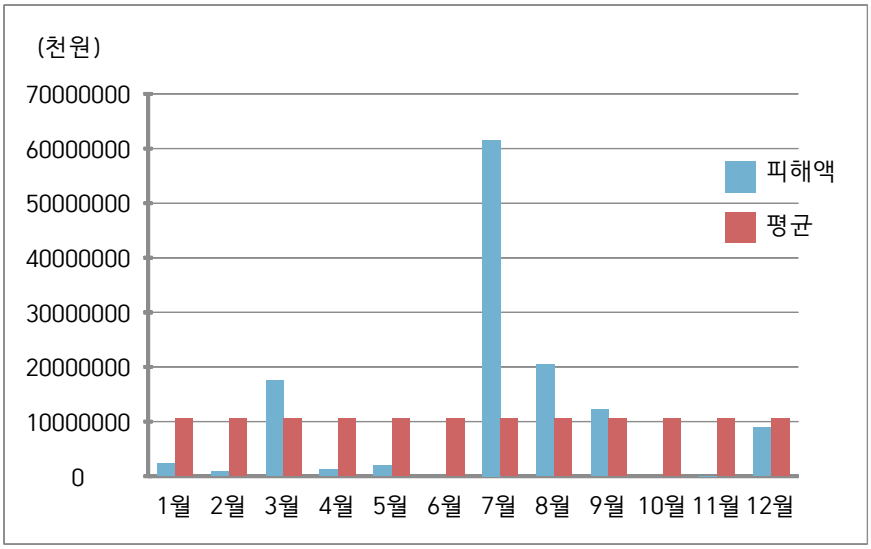
구분		조사방법(단위)	조사년도	출처
자연재난	풍수해[1]	시군별 피해액(천원)[2]	2010~2019	국민재난안전포털 재해연보
	폭염	지점별[3] 폭염일수(일)	2010~2019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낙뢰	시군별 낙뢰 누적횟수(회)	2012~2019	기상청 낙뢰연보
	가뭄	시군별 피해건수(건)	2012~2019	국가가뭄정보포털
	지진	시군별 규모 2.0 이상 발생건수(건)	2011~2019	기상청 날씨누리 국내지진 목록
	황사	지점별[4] 관측일수(일)	2010~2019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조류	시군별 조류경보제[5] 발령 일수(일)	2010~2019	물환경정보시스템

2) 충북의 발생현황

풍수해

■ 충북의 10년 간 발생한 풍수해 피해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10,577,434원으로 나타났으며, 7월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8월, 3월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풍수해 특성상 태풍, 홍수 등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와 반대로 6월에 가장 적은 이유는 종료일 기준으로 집계됨에 따라 6월에 발생한 풍수해가 7월 현황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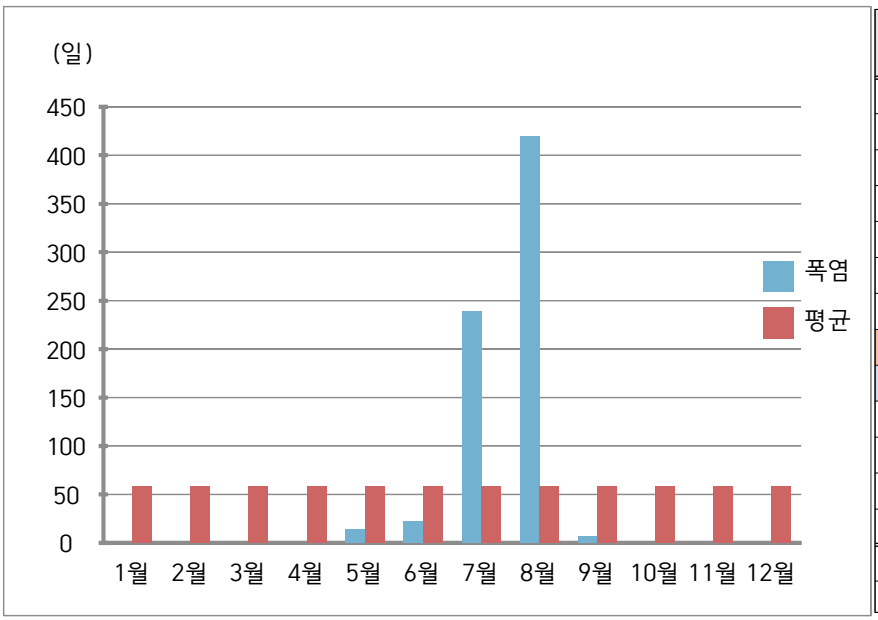
구분	풍수해 (천원)
1월	2,331,412
2월	855,218
3월	17,473,724
4월	1,204,058
5월	1,925,468
6월	1,606
7월	61,537,342
8월	20,408,577
9월	12,242,587
10월	11,039
11월	68,001
12월	8,870,179
미상	-
소계	126,929,211
평균	10,577,434.3

1) 재해연보에 포함되는 호우, 대설, 풍랑, 강풍, 태풍, 폭풍우 등 총괄
2) 풍수해 기간 종료일 기준
3) 보은, 제천, 청주, 추풍령(영동), 충주
4) 보은, 제천, 청주, 추풍령(영동), 충주
5) 유해남조류세포수 1,000cells/㎖ 이상-'관심'/10,000cells/㎖ 이상-'경계'

폭염

■ 충북의 10년 간 발생한 폭염 일수를 살펴보면, 월평균 58.4일로 나타났으며, 8월에 가장 높고, 주로 5~9월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폭염 특성상 장마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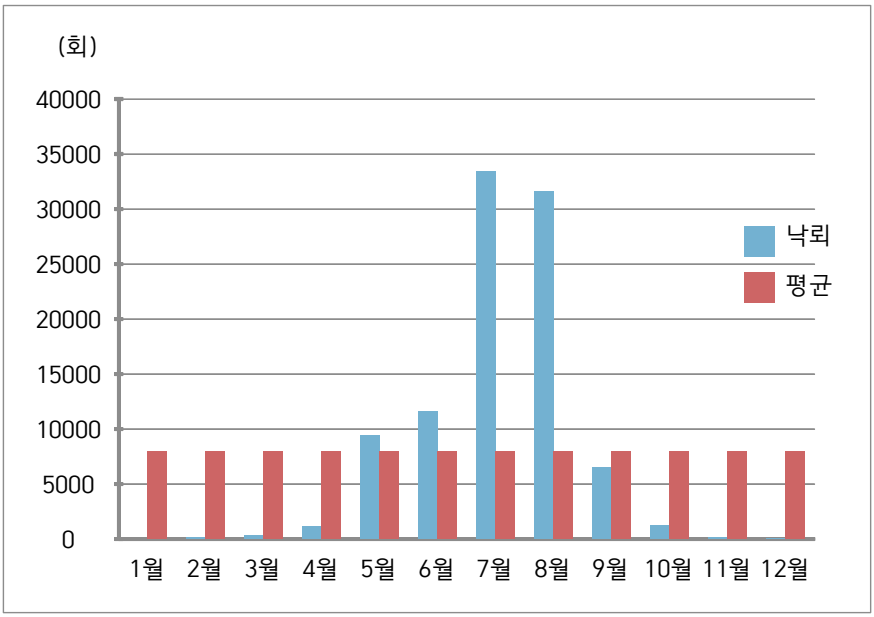


구분	폭염 (일)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14
6월	22
7월	239
8월	420
9월	6
10월	-
11월	-
12월	-
미상	-
소계	701
평균	58.4

낙뢰

■ 충북의 10년 간 발생한 낙뢰 횟수를 살펴보면, 월평균 7968.8회로 나타났으며, 7월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8월, 6월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11~2월에는 낮게 나타남

- 이는 낙뢰 특성상 천둥, 번개를 동반한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이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와 반대로 겨울철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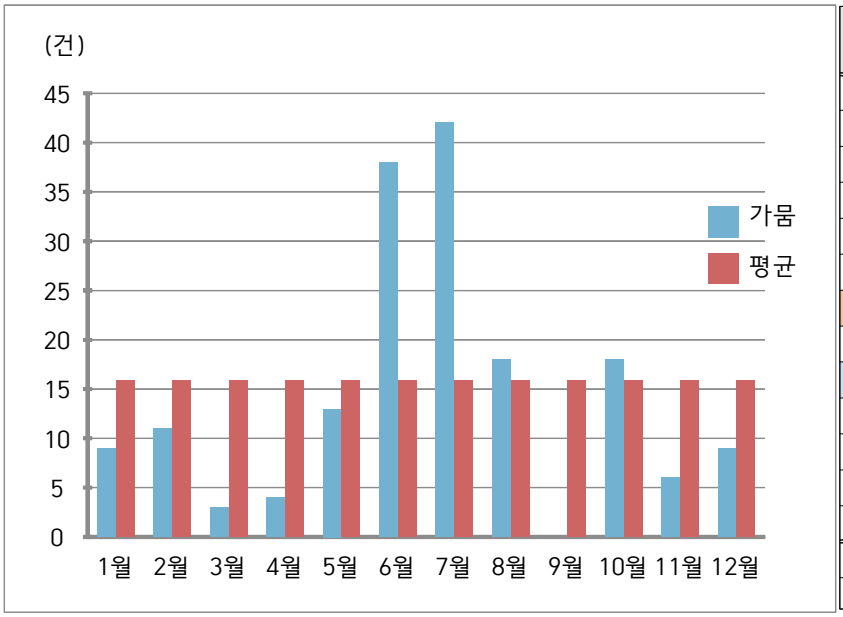


구분	낙뢰 (회)
1월	5
2월	149
3월	297
4월	1,169
5월	9,456
6월	11,566
7월	33,452
8월	31,589
9월	6,525
10월	1,189
11월	161
12월	68
미상	-
소계	95,626
평균	7968.8

가뭄

■ **충북의 10년 간 발생한 가뭄 건수를 살펴보면, 월평균 15.9건으로 나타났으며, 7월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6월, 8월, 10월 순으로 나타남**

- 가뭄 특성상 가뭄은 시작과 끝이 부정확하며 장시간에 걸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다른 재난 유형과 다르게 가뭄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가 증가하며 정상적인 강우기가 시작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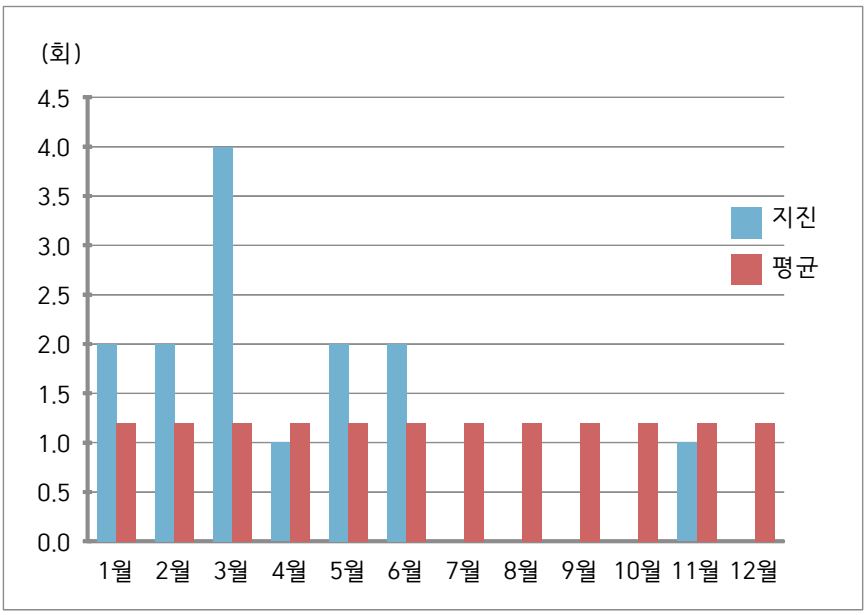


구분	가뭄 (건)
1월	9
2월	11
3월	3
4월	4
5월	13
6월	38
7월	42
8월	18
9월	0
10월	18
11월	6
12월	9
미상	20
소계	191
평균	15.9

지진

■ **충북의 10년 간 발생한 지진 횟수를 살펴보면, 월평균 1.2회로 나타났으며,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함**

- 지진은 다른 재난에 비해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예측도 쉽지 않기 때문에 월별 발생현황에서 경향성이나 특징이 상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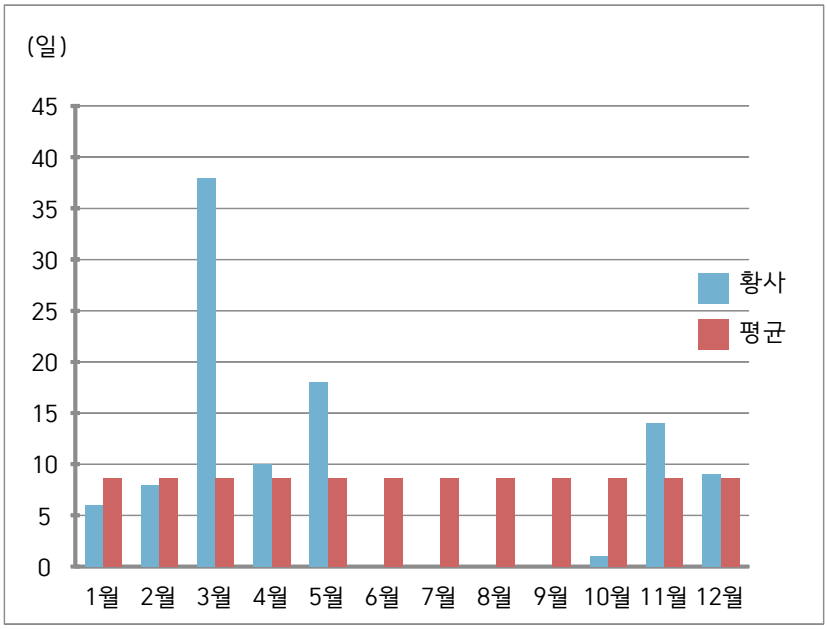


구분	지진 (회)
1월	2
2월	2
3월	4
4월	1
5월	2
6월	2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1
12월	-
미상	-
소계	14
평균	1.2

황사

■ **충북의 10년 간 발생한 황사 일수를 살펴보면, 월평균 8.7일로 나타났으며, 3월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5월, 11월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황사 특성상 중국의 사막 지대를 지나 강한 편서풍이 부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봄이 지나면서 여름이 시작되고 비가 많아지는 6~10월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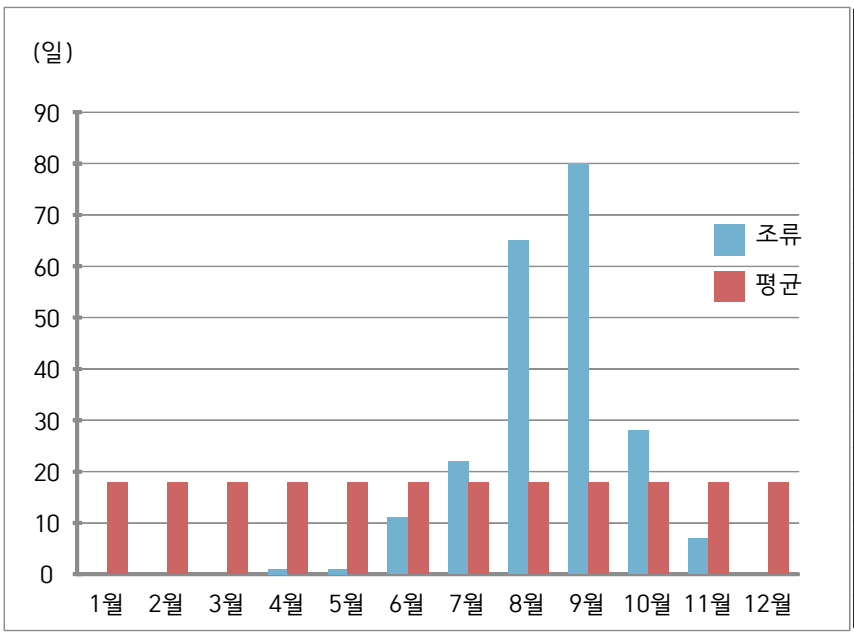


구분	황사 (일)
1월	6
2월	8
3월	38
4월	10
5월	18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1
11월	14
12월	9
미상	-
소계	104
평균	8.7

조류

■ **충북의 10년 간 발생한 조류 일수를 살펴보면, 월평균 17.9일로 나타났으며, 9월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8월, 10월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조류 특성상 수온이 높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하는 8~9월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임



구분	조류 (일)
1월	-
2월	-
3월	-
4월	1
5월	1
6월	11
7월	22
8월	65
9월	80
10월	28
11월	7
12월	-
미상	-
소계	215
평균	17.9

3. 결 론

■ 최근 10년 간 세부 재난유형 별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충북의 경우 풍수해, 낙뢰, 가뭄은 7월, 폭염은 8월, 지진과 황사는 3월, 조류는 9월이 최다 발생시기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도출된 최다·평균 발생시기를 반영하여 충북 특성에 맞는 시기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이를 토대로 충북도는 재난발생 이전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인력·시설 등의 기반적 요소를 준비하여야 하며, 도민들 역시 스스로 자연재난 발생 취약시기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자연재난 특성 상 불가피하게 예방·대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대응 측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정비가 필요함

■ 충북 11개 시군별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풍수해는 청주·괴산·음성, 폭염은 청주·충주·제천·보은·영동, 낙뢰는 청주·충주·제천·보은·영동·괴산, 가뭄은 충주·단양, 지진은 충주·옥천·영동, 황사는 청주·충주·영동, 조류는 청주·보은이 평균치 이상으로 발생한 취약지역으로 나타남

- 대체로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취약지역에 속하는 자연재난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이나 담당자 배치 등에 있어 이들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취약지역과 최다·평균이상 발생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난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별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지역이 지닌 자연재난 취약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최다·평균이상 발생시기 및 취약지역〉

구분	풍수해 (천원)	폭염 (일)	낙뢰 (회)	가뭄 (건)	지진 (회)	황사 (일)	조류 (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취약지역[1]	청주시 괴산군 음성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충주시 단양군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	청주시 보은군

최다발생시기
평균이상발생시기

※ 최다 발생 시·군은 빨간색으로 표기

1) 평균치 이상 발생 시·군

「정책 Brief」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충북도, 기후변화 대응 녹색공간 확대한다

- 2022년 238억원 투입, 탄소중립 실현 및 생활환경 개선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실시**

- 충청북도는 2022년 도시숲 분야 국비 사업비를 역대 최대로 확보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3개 사업에 국비 119억을 포함해 238억원 투입

  * 미세먼지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도심권 유휴지 등에 숲을 조성하고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억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하여 청주,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등 5개 시군에 1개소씩 총 5개소 조성

  **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에 있는 숲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증평군 일원에 8개소의 숲 조성

  *** 자녀안심그린숲은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청주와 충주에 각 2개소씩 4개소 조성

- 이 외에도 도심 속 자투리땅이나 유휴지에 조성하는 녹색쌈지숲, 학생들의 녹색교육장으로 활용될 학교숲 등 다양한 유형의 녹색 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명상숲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사업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

- 도시숲은 경관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소음을 감소시키고, 도시민에게 휴식과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시 내 서식동물이 살아가는 생태적 복합 공간이자 탄소중립 전진기지로서 중요성 날로 증대

- 특히, 도시숲은 한낮의 평균기온을 3~7℃ 완화시키고, 1㏊의 숲은 연간 미세먼지 46㎏을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 168㎏을 흡수·흡착하는 등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주관기관**
충북도청

◆ **출처**
충북도청 산림녹지과
권도형
☎ 043-220-3783

◆ **일자**
2021. 10. 2.

충북소방본부, 전통시장에 Safe Guide 추가 배치

- 소방 퇴직공무원, 전문성 및 노하우로 전통시장 지킨다. -

주요내용

■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1일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Safe Guide*' 위촉식을 열고 도내 4곳의 전통시장에 인력 추가 배치**

* Safe Guide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소방에 몸을 담았던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를 의미

- 작년 6월부터 시작된 Safe Guide는 기존 전통시장 5곳(청주 육거리·사창시장, 충주 자유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운영되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4명의 퇴직 소방관을 도내 4곳에 추가 배치
- 도내 추가 배치장소는 보은에 소재한 결초보은시장과 영동 전통시장, 음성 무극시장과 괴산 전통시장으로 앞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 예정
-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순찰,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소방통로 확보, 소방시설 확인 및 유사시 초기대응, 시기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안전 컨설팅 등으로 구성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예방안전과
민세존
☎ 043-249-4623

◆ 일자
2021. 10. 4.

영동군, 재난형 가축질병 철통방어 '청정지역 사수'

주요내용

■ **충북 영동군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차단방역체계를 확립하는 등 총력대응 실시**

- 지난해에는 11월 26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시작된 AI가 10개도에서 109건이 발생됐고, 가축질병위기관리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위기 상황 발생
- 군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며 유사시 즉각적인 상황파악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태세 구축
- 군은 현재 영동군청 3층 농정과에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심축신고 접수 및 가축방역관련 정보 홍보 등을 위하여 비상근무 실시
- 또한, 영동읍(어서실), 용산면(율리), 황간면(서송원)에 거점소독소 및 농장초소 설치하여 운영
- 각 초소의 특성을 감안해 1일 8시간~24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축산차량 및 대인소독, 소독필증 발급 등의 방역활동 수행
- 주요 농장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규모농가, 집단사육지역 및 강변 등의 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및 군 보유 소독차량 3대를 활용 지속적으로 소독 지원

◆ 지자체
영동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84240

◆ 일자
2021. 10. 4.

충북소방본부, 본격적인 가을철...'산악사고 주의'

9~10월 전체 산악사고 중 27.9% 차지, 가을철 산악사고 주의보 -

주요내용

■ **충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비롯한 나들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각별한 주의 당부**

- 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천 464건이며, 이중 야외활동하기 좋은 9~10월에는 총 409건의 산악사고가 발생, 전체의 27.9%를 차지
- 원인별로는 조난사고가 383건(26.1%), 실족·추락 274건(18.6%), 개인질환 90건(6.1%), 탈진·탈수 77건(5.2%), 낙석·낙빙 11건(0.7%), 저체온증과 벌 쏘임 등 기타 산악사고가 629건(43%) 발생
- 지역별로는 소백산맥이 이어지는 단양군이 254건(17.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월악산이 위치한 제천시가 223건(15.2%), 도명산이 있는 괴산군이 219건(14.9%), 천태산과 민주지산이 있는 영동군이 211건(14.3%), 청주 164건, 보은 149건, 충주 102건 순으로 발생

■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2~3명이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를 선택해야 하며 산행 전에는 기상상황 체크와 예방수칙 등 숙지 요망**

- 산행 안전수칙으로는 산행 전 준비운동 철저, 음주·흡연 절대 금지, 지정된 등산로 벗어나지 않기, 산행 시 2명 이상 동행하기, 랜턴 및 보조배터리 구비, 다목적 위치표지판·국가 지정번호 등 숙지 요망
- 또한,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하며, 일몰시간이 빨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후 5시 이전에 하산할 것을 당부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예방안전과
유진상
☎ 043-220-4923

• 일자
2021. 10. 5.

충북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고병원성AI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대응! -



(출처 : BBS news)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동물방역과
이종화
☎ 043-220-3562

◆ 일자
2021. 10. 5.

주요내용

■ **충북도는 고병원성 AI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올해 고병원성 AI는 최근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로 도래하는 철새가 시베리아에서 유럽의 철새와 접촉 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 증가

※ (해외) : '21. 8월 기준 55개국 2,826건(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 역대최고치인 '17년도와 비슷)

※ (유럽) : '21. 8월 기준 야생조류 발생이 전년동기 대비 40배 증가, 유형도 다양(1종→6종)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충북도와 인접한 강원도 영월, 평창, 홍천 지역 멧돼지와 양돈농가 신규 발생으로 남하 가능성 우려

※ ASF 발생상황 : 사육돼지 20건, 멧돼지 1,634건(경기 646, 강원 988), ≪충북 발생 없음≫

■ **충북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AI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등 각 재난형 가축전염병별 선제적 대응계획 마련하여 추진**

-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로 현재 운영 중인 가축방역상황실은 향후 구제역·AI 상황반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도 · 시군·농협 등 33개 유관기관이 참여할 계획

※ 상황실 운영 ; 33개(도1, 시군11. 시험소 4, 방역본부4, 축협8, 수의사회, 축종별협회4)

■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으로는 3개 분야 15개 과제(Three Five 방역대책)를 중점적으로 추진**

- 발생방지를 위한 주요대책으로 겨울철 오리휴지기제를 오리농가 5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야생조류로부터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13개소)을 지정해 축산차량 및 가금종사자의 통행 금지하며, 가금농장 지정 전담관제를 통한 방역수칙 밀착지도, 가금농장 검사주기 단축(분기 1회→월 1회)해 조기검색 강화
- 또한, 취약구간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주체 방역관리 강화, 가금 입식·출하 단계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규모 농가 자율도태 추진, 축산차량 통행 다량구간(34개소) 집중소독 등 추진
- 자율방역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서는 방역우수 농장(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고병원성 AI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10종) 발령, 위험시기 오리농가 조기출하 장려지원 등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는 도내 ASF 유입방지를 위해 북부 7개 시·군*을 권역화해 돼지와 분뇨의 권역 밖 반출입을 금지하고, 발생지역 양돈 위험물류(돼지 생축·분뇨·사료)차단, 등산·안보관광 자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

* 7개 시군 : 충주, 제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출입통제시설 및 8대 방역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농장단위 방역점검 정례화 등의 대책 추진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 구제역은 항체양성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빈틈없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부터 6주간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하고 항체검사 강화, 항체미흡농가 특별관리, 항체우수농가 백신구입비 지원 등 예방접종률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
- 또한, 방역사각 해소를 위해 구제역 바이러스 도내 유입방지, 소규모 농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구간을 중점관리하는 등의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계획

※ '21년 항체양성률(1~8월 누계) : 소 98.4%, 돼지 92.8%, 염소 93.8%



(출처 : 뉴시스)

“폭우피해 걱정 없어요”…진천군, 폭우 대응시스템 구축



- **지자체**
  진천군
- **출처**
  충청일보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5706
- **일자**
  2021. 10. 6.

주요내용

■ **충북 진천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억원을 들여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과,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지난 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344곳에 큰 피해가 발생해 진천읍과 백곡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갑작스런 폭우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민 안정망 강화 실시
- 8억원이 투입된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은 진천읍 백곡천 하상주차장 출입구 16개소와 광혜원면 칠장천 하상주차장 출입구 2개소 등에 각각 설치
- 차량이 둔치주차장으로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를 인식해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운전자 연락처로 위험상황 전달
-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둔치주차장에 나가 진출입로를 직접 통제하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해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탈피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호천 배수문 4곳에 설치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현장 방문 없이도 배수문 원격제어와 모니터링 가능
- 집중호우 대비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군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하천 수문에 대해서도 자동화시스템 확대 적용할 계획

충북도, 한글날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진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7일 특별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른 분야별 조치계획 등 연휴 방역대책 점검**

- 현재 충북도 주간(9.30.~10.6.)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48.3명으로 추석 명절 이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간 확진자 중 외국인 발생 비율이 55.9%(306명 중 171명)에 이르는 등, 가을 행락철과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맞물린 시기에 방역 관리 강화 필요
- 이에, 도는 연휴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 생활시설, 종교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관광지, 외국인 다수이용 식당 등의 방역실태 점검 실시
- 또한, 기업체 및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신규채용근로자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이행 계도, 타 시·도 이동자제 및 백신 예방접종 권고, 4개 국어 자막방송 송출, 전광판 표출, 재난문자 발송 등 시행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사회재난과
오신영
☎ 043-220-2413

• 일자
2021. 10. 7.

충북도,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

10.21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550여 곳 현장점검 실시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의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550여 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방안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노인복지시설 감염확산 차단 및 단계적 일상 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 시·군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등 미준수 시 현장 시정 및 행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
- 주요 점검 사항은 외국인 종사자 백신 접종 여부, 방역물품 확보 여부,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 현황, 방역 및 면회수칙 준수 여부 등으로 구성
- 도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시작으로 내달 10일부터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종사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

* 추가접종(Booster Shot) : 기본접종 후 일정기간 후 면역력 증강을 위해 다시 예방접종을 행하는 것을 추가접종이라 지칭

- 백신 접종 완료자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이 발현될 경우 신속한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이 밀집해 생활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 당부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
김지현
☎ 043-220-3103

• 일자
2021.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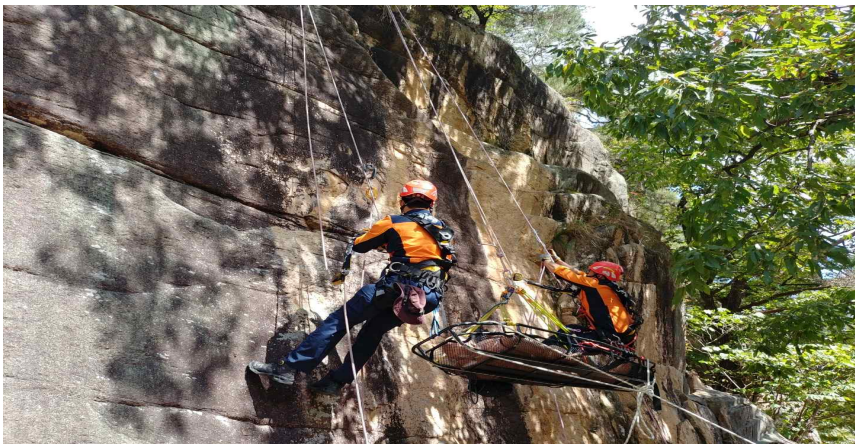
충북 119특수구조단, 특별 산악구조 훈련 실시

- “골든타임 내 구조하라” 실전방불 산악사고 구조훈련 -

주요내용

■ **충북소방본부는 14일 오전 10시 괴산군 사랑산 일원에서 암벽, 추락사고를 대비한 특별 산악구조 훈련 실시**

-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출동 459건, 구조 359명, 2019년 출동 436건, 구조 297명, 2020년 출동 378건, 구조 301명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사고 꾸준히 발생
- 이번 훈련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조난, 실종, 추락 등 각종 산악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
- 주요 훈련 내용은 수목 등 지형지물을 이용한 로프설치, 산악구조론 및 구조장비 사용법, 로프매듭, 다중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암벽 기초등반 및 하강, 상황별 구조훈련(업기 법, 들것구조 등), 도르레 시스템 응용구조, 계곡구조 훈련 등으로 구성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교통정책과
  연기호
  ☎ 043-220-4282
- **일자**
  2021. 10. 17.

영동소방서,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주요내용

■ **영동소방서는 최근 일교차 변화와 기온강하에 따라 전열기구 사용 등 각종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 최근 3년간(2019~20021년 10월 6일)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112건으로 재산피해는 약 55억 원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4일 괴산군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육시설과 1,600여 마리의 돼지가 폐사하는 등 약 2억7천만 원의 재산피해 발생
- 이에 영동소방서는 관내 축사 2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통한 화재 예방 컨설팅, 화재예방 안내문 통한 예방수칙 홍보, 소화기 비치 등 안전관리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
- 축사시설은 대부분 연소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과 건물 구조로 화재 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므로 축사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 **지자체**
  영동군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85522
- **일자**
  2021. 10. 18.

청주시, 도심지 소로에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

주요내용

■ **청주시는 도로폭 12m 미만 소로의 교차로에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실시**

* 초소형 회전교차로는 도심지, 아파트 진입로 등 내접원 직경 15m 미만 소로에 설계속도 30㎞/h 미만 도로의 승용자동차 기준 회전교차로를 의미

-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시는 2018~2020년 3년간 교통사고 신고 건수를 바탕으로 도로·교통 여건을 고려해 수동 성당 인근, 흥덕경찰서 인근, 가경동 꽃재공원 인근 교차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
- 이들 대상지는 주정차 차량과 도로 구조상 운전자 시인성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된 곳으로 구성

※ 지난 3년간 수동 성당 인근은 교통사고 17건·부상자 24명, 흥덕경찰서 인근은 사고 17건·부상자 38명, 꽃재공원 주변은 사고 4건·부상자 4명 발생

- 시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난달 교통전문기관인 관할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달 착공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 **지자체**
청주시

◆ **출처**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86233

◆ **일자**
2021. 10. 18.

충북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 행락차량 급증, 짙은 안개 취약시기로 교통안전 집중 추진 -

주요내용

■ **충청북도는 시군 및 관련단체와 함께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업용(버스·택시·화물) 차량을 대상으로 9~11월 말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철 교통안전 대책 집중 추진**

- 10~11월은 가을 나들이객이 집중되며, 행락차량 급증과 계절적 요인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에 취약
- 또한, 최근 3년간('18 ~'20년) 충북 도내 가을철(9월~11월) 교통사고 발생률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7,583건(27.5%), 사망자수는 151명(25.9%), 부상자수는 12,285명(27.6%) 차지

※ 가을철 3개월간 교통사고 발생률이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의 4분의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기에 충청북도는 교통안전취약지역 점검·보수, 대형 교통사고 대비체제 확립,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운수업체 안전점검(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운행전 차량점검),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용 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교통안전에 행정력 집중

◆ **주관기관**
충북도청

◆ **문의**
충북도청 교통정책과
연기호
☎ 043-220-4282

◆ **일자**
2021. 10. 19.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종합방재실 · 피난안전구역 설치 · 운영 적정성 등 점검 -

주요내용

■ **소방청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98개소

-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 실시

■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 · 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예정**

-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으로 구성
-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 · 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
- 시 · 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
-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



(출처 : CCTV뉴스)

• 주관부처
소방청

• 문의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경 신경임
☎ 044-205-7452

• 일자
2021. 10. 1.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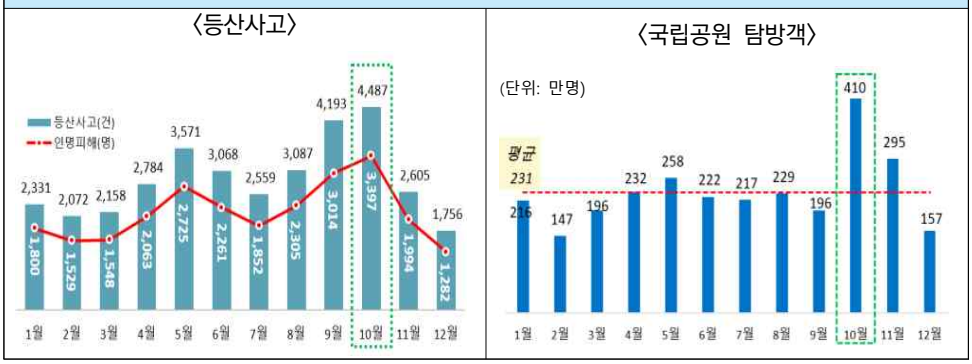
- 실족·추락 주의, 지정 등산로 이용, 산행은 해지기 전에 마침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 요청**

-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601, 실종 285, 부상 24,884)의 인명피해 발생
- 이 중, 10월에는 가장 많은 4,487건(12.9%)의 사고로 3,397명(13.2%)의 인명피해 발생

〈월별 등산사고('15~'19 합계) 및 국립공원탐방객('20년) 현황〉



(출처 : 등산사고(재난연감), 국립공원탐방객(국립공원기본통계))

- 이러한 등산사고 3건 중 1건(33.7%, 총 34,671건 중 11,690건)은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 실족·추락이 원인이며, 조난 19.8%(6,855건), 음주 및 금지구역 출입 등의 안전수칙불이행 17.0%(5,908건) 그리고 개인질환으로 인한 사고도 11.1%(3,855건) 발생

※ '21.8.30.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정상 인근에서 등산객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사망 1명)

※ '21.10.3.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용아장성(출입 금지구역) 암벽 등반 중 추락(사망 2명)

■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산행 주의**

- 한로(10.8.)와 상강(10.23.)을 지나면서 등산로와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

※ (한로)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로 이슬이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기

- 산행 시에는 발바닥 전체로 걷도록 하고, 신발은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선택하도록 하며, 가을철에는 떨어진 낙엽을 밟고도 미끄러지기 쉬운데, 이럴 때는 등산지팡이(스틱)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되며, 산행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요망
-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하며, 요즘처럼 낮의 길이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져 위험하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을 당부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오영남
☎ 044-205-4521

• 일자
2021. 10. 7.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도록 하며, 조난 시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신고,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으로도 구조 요청 가능
- 또한, 추워지는 날씨 속 산행은 체력을 빨리 떨어뜨려 위험하니 유사시 덧입을 여벌의 옷도 챙겨가도록 하며. 산행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 진행하고, 몸에 이상이 오면 즉시 하산할 것을 당부

〈산행 전 몸풀기 요령〉



가을철 야외활동, 쯔쯔가무시증 조심하세요!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를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 가을철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이 본격적인 호발 기간(10월 중순~11월)을 앞두고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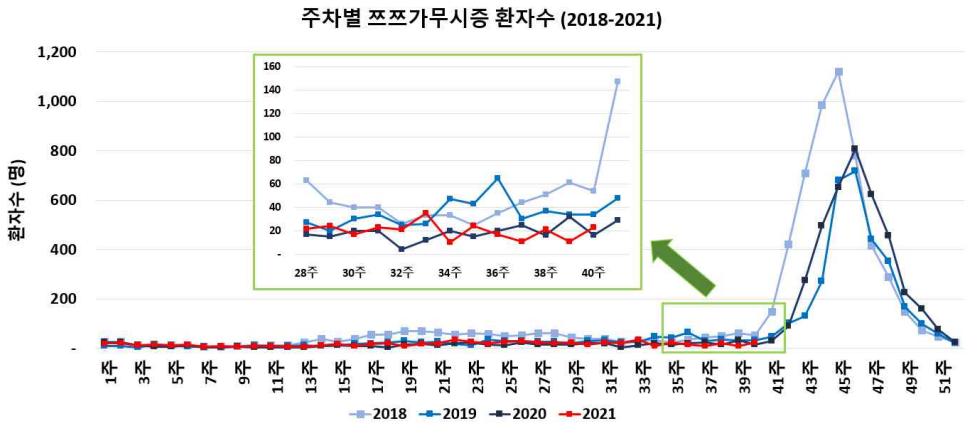
  * 2020년 545명 → 2021년 683명(9월 30일 기준)

-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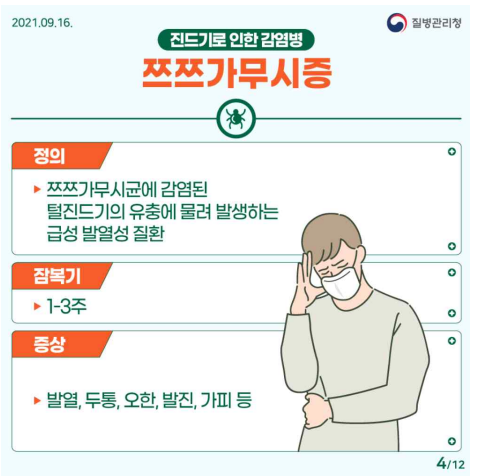
- 털진드기는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개체수가 많아지므로, 이 기간에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 2020년, 10~11월 쯔쯔가무시증 발생 건수가 연간 발생의 약 77.8% 차지

-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중요하므로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시에 치료를 받을 것 강조



(※ 2021년 통계는 잠정통계임)





◆ **주관부처**
질병관리청

◆ **문의**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정세진
☎ 043-719-7168

◆ **일자**
2021. 10. 8.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위한 최신 비상대응 정보 제공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즉각적인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최신 비상대응 정보를 담은 '유해물질 비상대응 안내서(핸드북)'를 10월 11일부터 소방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 실시**

- 이번 안내서는 캐나다 교통국에서 미국 등 북중미 지역 화학물질 규제전문가와 협력하여 1996년부터 4년마다 발행하는 '비상대응 가이드북(Emergency Response Guidebook)' 2020년도 개정판을 사용자 편의성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제작
- 특히 화학 사고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초동 조치를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최신 정보를 비롯해 물질별 안전확보 거리 및 오염 이론, 제거 기술 등 수록
- 물질별 유엔(UN)번호*·영문명·한글명·카스(CAS)등록번호**, 위험 등급분류, 화물운송 차량 표시 · 그림문자, 화학물질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화학물질 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별로 수록

*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 카스(CAS, Chemical Abstract Service) 등록번호는 미국화학회에서 부여한 물질 고유 번호로 과학자, 산업계 및 규제기관 등에서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중 하나

- 이밖에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가스물질, 산화성물질, 독성물질, 부식성물질, 물 반응성물질 등 화학물질유형별로 잠재된 위험성을 비롯해 현장대원과 인근주민의 안전, 화재 및 유 · 누출에 대한 비상대응 방법도 설명
- 이번 안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소방서, 군, 경찰, 지자체 등 600여 개 유관기관 근무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 공개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서를 활용해 사고대응 유관기관, 화학물질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



〈주요내용〉

- 화학물질 색인(UN번호, 영문, 한글, 번호)
- 사고대응을 위한 물질유형별 비상대응지침, 초기 이격거리, 방호활동거리
- 화학사고 대응법과 안전정보 제공 등

※ 보호복, 화재 및 누출진압, 증기폭발 안전사항, 화생방 작용제, 사제폭발물, 용어집 정보 등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연구관 조윤제
☎ 043-830-4154

◆ **일자**
2021. 10. 12.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안전 이행력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 10월부터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 개선**

-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 실시
-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 실시
- 또한,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 실시
- 이와 함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 '21년 건설현장 점검량을 3배이상 확대('20년 6,212개소 → '21년 19,850개소)

■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

-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며,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go.kr)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 동의 체크
-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상품권 등 포상을 지급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

※ 아이디어 제안은 카드뉴스 내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

- 또한, "건설안전 365" 카카오톡 채널도 개설하여,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 및 현장 중점 점검사항 등 안전정책 정보도 제공할 계획

※ 채널은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건설안전 365"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가입 가능

- 10월부터는 매월 사고공유 웨비나(Webinar)도 추진하여, 사고사진을 포함한 월간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유형별 사고예방 및 관리개선방안 등을 알릴 계획

■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하여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 추진**

* 착공 전 계획서 검토, 공사 중 안전관리 이행의 적정성 검토 등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하며, '21년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으로 '22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
-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는 건설안전 교육자료 Library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 내에 신설

* 교육자료 협조 건설사 :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쌍용건설(이상 '21년 시공능력평가 순) 등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유진욱
☎ 044-201-3563

◆ 일자
2021. 10. 12.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

-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 산정 추진**

《 빈집 등급별 예시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 변경 가능
-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가능

■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 강화**

-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마련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 가능

■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
-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최희정
☎ 044-201-4943

◆ **일자**
2021. 10. 14.

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

-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

  *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주민등록자료 기준)에 따라 가정양육아동도 전년 대비 감소('20년 34,819명→'21년 26,251명)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방문대상으로 선정

-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하여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

-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진행

-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 요망



•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경찰청

•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욱진
☎ 044-202-3449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김민성
☎ 02-3150-2448

• **일자**
2021. 10. 15.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 (8.10)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추진 중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 완료**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
-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 마련하여 추진

■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 개선**

-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 실시**

-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
-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여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건축물 생이이력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당일 작업공종,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기재

-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 확인 가능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노운용
☎ 044-201-4986

◆ **일자**
2021. 10. 15.

-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
-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
-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21.10.15(금)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1. 10. 15.~ 11. 4.(20일간)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9, 4986, fax 044-201-5575)

〈해체공사장 위험요인 사례〉

◈ 주변 보호조치 미흡



· 버스정류장 보호조치 미흡 ·



· 보행자 보호조치 미흡 ·

◈ 가설울타리 관리 미흡



· 가설울타리 기울음 ·



· 가설울타리 파손 ·



· 가설울타리 설치 미흡 ·

◈해체잔재물 낙하, 분진, 소음방지 조치 미흡



· 낙하물방지망, 분진망 미설치 ·



· 가설방음벽 미설치 ·

주말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 행안부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한파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산객 보온유지·낙상위험 안내, 농·수산물 냉해 방지 등 당부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일요일(17일)에 전국 대부분의 내륙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

* (한파주의보/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

※ 서울지역 10월 중순 첫 한파특보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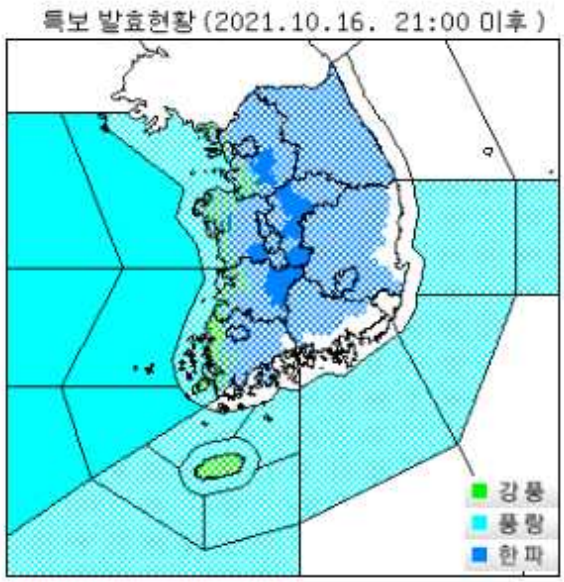
-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토요일(16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일요일(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급감하고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도 전망

■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하도록 요청**

- 우선,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리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이·통장 등)를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와 건강 확인 요청
- 또한, 가을 단풍철*로 이동량이 많은 10월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만큼 등산객을 대상으로 저체온증 대비 보온 유지와 빗길 미끄럼·낙상사고 위험 등에 대한 안내 강화

* 단풍 절정 시기 : 설악산 10.17, 오대산 10.16

- 야영장, 캠핑장 등에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과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 온 뒤 산악지역 도로결빙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아울러, 기온 강하로 인한 농·수산물의 냉해 방지와 강풍에 대비하여 농작물의 고정·결박과 낙과 대비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TV자막(DITS), 긴급재난문자(CBS),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기상상황과 주의사항 신속하게 전파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양영식
☎ 044-205-5236

◆ **일자**

2021. 10. 18.

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5개 연구진과 공동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GMAP2021**) 실시**

* 미국 항공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및 브레멘대학교,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원 등

** GMAP2021: GEMS Map of Air Pollutio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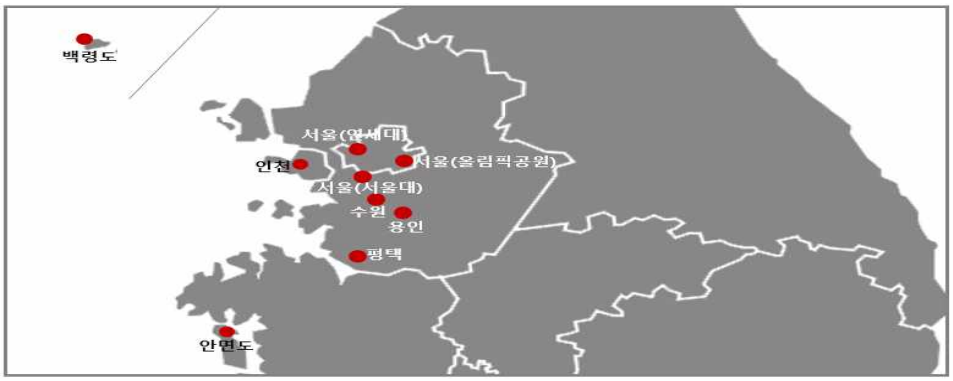
- 이번 조사는 2022~2024년에 예정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지상,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3차원 오염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
-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및 원인물질을 측정·분석하여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기작 규명
- 또한, 지상(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위성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환경위성 산출물 농도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개선

* 기상관측 장비 중 하나로 독일어에서 유래했으며, 풍선 등에 관측 장치를 부착하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전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

-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KORUS-AQ)는 지난 2016년 5~6월 미국항공우주국과 수행했고,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이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양, 오존 발생 주요 인자 등의 결과 도출
-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미국·유럽 및 환경위성 관측영역인 아시아 국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 대상지역도 한반도와 아시아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연구와 더불어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 관측시점〉



◆ **주관부처**
환경부

◆ **문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연구사 이혜정
☎ 032-560-8430

◆ **일자**
2021. 10. 18.

여가부, 성범죄자알림e 지도 정확성 높인다

- 네이버 지도로 바꿔 시범운영 시작 -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는 10월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수용

  *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위·경도 값)를 확인하여 연계된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하여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 추진

-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전수('21.10.13. 기준 3,462명) 조사할 예정

- 만약,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 요청

-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국민들이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동·청소년 등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계획

〈오류 신고 화면 예시〉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경희
☎ 02-2100-6406

• **일자**
2021. 10. 19.

정부서울청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추어 재난안전 대응 태세 확립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0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이번 훈련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에 맞춰 내실 있는 정부청사 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 비상소집, 관·경 대테러 합동훈련 및 화재대응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

※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기관별 자율적 분산 실시

- 서울청사관리소는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연계한 복합적인 상황 조치 훈련(무단침입·테러 대응 및 화재 진압 훈련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훈련 진행

-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전국단위 동시 상황 전파·지휘 훈련으로 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의 상황을 청취하며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까지 훈련할 계획

〈훈련 예행연습 사진〉



안전한국훈련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테러 대응, 화재 진압 훈련 예행연습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 **문의**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
전문경력관 조정형
☎ 02-2100-4527

◆ **일자**

2021. 10.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충남소방 '소방헬기 119진화대' 본격 운영



- **지자체**
  충청남도
-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21
- **일자**
  2021. 10. 5.

주요내용

■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섬마을 화재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헬기 119진화대' 운영**

- 기존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섬마을과 산림지역에서 불이 나면 소방헬기로 높은 상공에서 물을 뿌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유일
- 소방헬기 119진화대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중에서 소방대원과 장비를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
- 헬기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진압 활동이 가능하며, 도가 자체 개발한 소방호스 배낭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백미터 이상 화재 현장과 멀리 떨어진 소류지나 바닷물도 소화용수로 활용 가능

■ **도 소방본부는 이날 홍성군 서부면 홍성방조제 일원에서 시범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헬기진화대 운영 실시**

- 섬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에서는 불이 난 현장에 소방헬기로 대원과 소방호스배낭, 동력소방펌프를 투입해 화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압하는 상황 연출
-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기상 여건과 근처에 물만 있으면 소방대원이 호스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 확장

제주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점검의 날 운영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유형별 PM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의 날 운영 실시
- 이번 점검은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6일 오후 2시 제주시청 벽화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7일에는 오후 2시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
- 합동 점검에는 제주도청을 비롯해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양 행정시(안전총괄과) 참여

■ **주요 점검 사항은 6대 안전수칙* 준수, 유형별 안전사고예방, 교통 취약계층 통행 방해 금지 등으로, 특히 PM 사용전 6대 안전수칙 숙지, 사용 중 과속금지, 장애물 등 주의, 사용 후 안전한 장소 반납, 통행 방해 금지 등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사용법 중점 안내**

* 6대 안전수칙은 안전모 반드시 착용하기, 2인 이상 탑승 금지,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만 16세 이상), 음주운전 절대 금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으로 구성

- PM 이용 시 교통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점자블록 위·다중이용시설 입구 등 무분별한 주차(반납) 금지 등 안전의식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
- 또한 코로나19 위험요소 안전신문고 신고 안내 리플릿과 PM 6대 안전수칙이 부착된 홍보물(코로나19 위생키트 세트)·마스크 배부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동참도 유도할 방침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445

◆ **일자**
2021. 10. 6.

구로구,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구로형 스마트폴' 설치

주요내용

■ **서울시 구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구로형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과 방범 강화**

* '구로형 스마트폴'은 교통사고와 범죄를 한 번에 예방하는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 구로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합안전 스마트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형 'CCTV 스마트폴', 대로변에 도심형 '가로등 스마트폴' 3가지 형태의 현장 맞춤형 스마트폴 제작하여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통합안전 스마트폴'이 설치된 장소는 미래초, 천왕초, 오류남초, 구로삼성어린이집 등 4곳 8개소이며 교통표지판,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범 CCTV 기능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도 설치해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이탈하면 경고 음성 송출
- 또한 인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몸비 방지 앱 신청도 받고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 후 앱을 설치하면 보도를 건널 때 '보행중 스마트폰 주의' 문구 표출

■ **구는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올해 3월 설치를 시작, 9월 완료했으며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7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

- 지난 2019년에는 구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범죄 위험이 높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형 'CCTV 스마트폴' 설치
- 지난해에는 신미림초 2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경인로 등 대로변 5곳에 도심형 '가로등 스마트폴'을 설치하고 구로구는 올해 말까지 총 90개소에 지역별 맞춤형 '구로형 스마트폴' 설치할 예정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시비를 포함해 총 37억5000만원의 예산 투입



◆ **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 **출처**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64749

◆ **일자**
2021. 10. 6.

서울시, 가까이 가면 밝아지는 '스마트보안등' 설치한다

주요내용

■ **서울시는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귀갓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는 '스마트보안등*' 설치**

*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서울시는 스마트보안등을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이 앱*'과 연계해 작동되도록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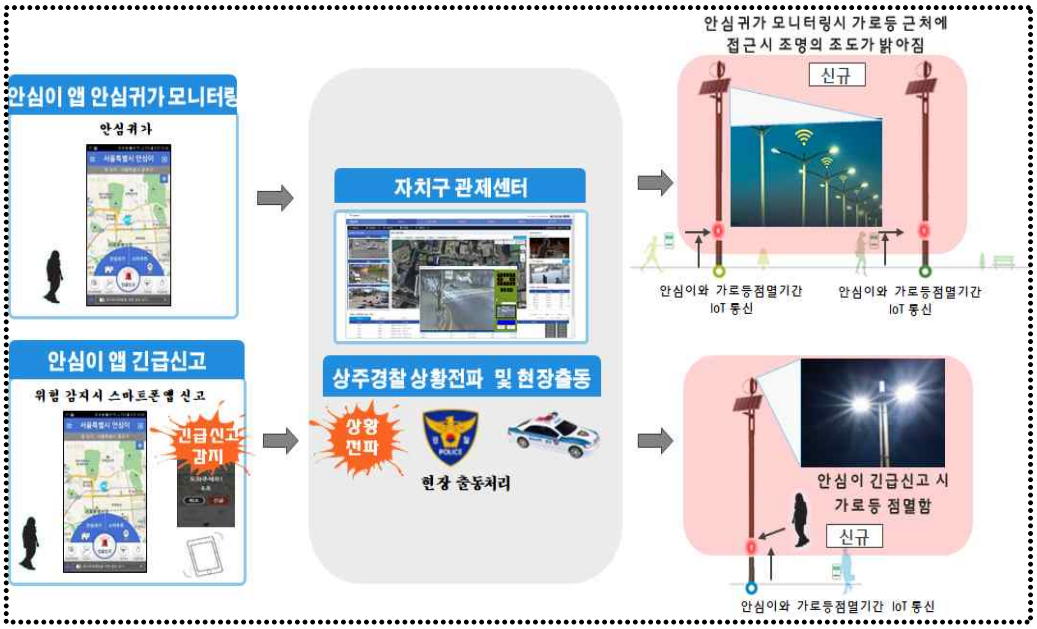
*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

- 안심이 앱을 켜고 '안심귀가모니터링'을 실행한 후 스마트보안등이 설치된 골목길을 걸으면 보안등 근처에 25~30m 이내로 접근했을 때 조명의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져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동시에 시인성이 낮은 기존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이 보다 밝고 선명하게 주변과 물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흔들면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와 연결돼 각 자치구 CCTV관제센터, 경찰서로 즉시 연락이 되면서 스마트보안등이 깜빡거림으로서 출동한 경찰은 물론 주변 행인들도 위험상황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941개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확대 설치 추진**

- 아울러 서울시는 스마트보안등 설치 지역의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 추진해 지역통합안전망 구축
- CCTV 확대 설치, 안심마을보안관을 활용한 지역 순찰,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통한 골목단위의 생활환경개선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할 계획

※ '안심이'앱 연계 구성도



• **지자체**
서울특별시

•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0071042229876

• **일자**
2021. 10. 7.

제주드론통합운영센터, 11월 정식 출범...'안전 플랫폼' 구축

주요내용

■ **제주도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 첫 과제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한라산을 포함해 제주 전역에서 드론 비행 계속 추진**

- 도는 11월 중 제주드론통합운영센터(가칭)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며, 이는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드론관제플랫폼과 폐쇄회로(CC)TV-드론 영상을 연계하여 진행
- 아울러 드론 상용화를 위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해양산업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단 등과 협업체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해 드론 영상이 필요한 지역을 촬영하고, 기관이 요구한 기능을 적극 구현해 나갈 방침
- 앞서 도는 9월 29~30일 드론특구 내 특별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등의 특례를 적용해 제주시 무수천주유소에서 광령리 게이트볼장까지 10kg의 물건을 싣고 1.5㎞ 거리를 9회 왕복 비행 개시
- 또 9월 30일 올레 1코스에서 스마트 드론 안심서비스에 나섰다. CCTV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규제 특례를 적용해 비행 개시
- 한편 제주 드론특구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2021년 7월29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운영 예정



◆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0101031214674

◆ **일자**
2021. 10. 10.

인천시, 교차로 등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주요내용

■ **인천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교차로 등 29곳에 대한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을 오는 10월말까지 설치 예정**

*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의 노면에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노면에 색을 입혀 차로의 방향을 안내

- 노면 색깔 유도선은 신광사거리 등 47곳의 교차로에 설치돼 있으며, 시는 경찰서 교통과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통해 서인천IC진출로 등 올해 대상지 15곳 선정
- 시는 군·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10곳, 교통운영개선사업 대상지 4곳 등 29곳의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
- 지난 2019년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한 부평시장역 오거리의 경우 설치전과 비교해 약 30%, 송림오거리는 약 50% 교통사고 건수 감소
- 교통사고의 약32%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데, 노면에 시인성 높은 색깔 유도선을 설치함으로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로 사고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 **지자체**
인천광역시

◆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12010005795

◆ **일자**
2021. 10. 12.

고양시, 위급상황 때 긴급 대피 '폴리스박스' 4곳 설치

주요내용

■ **경기 고양시는 범죄 위기시 긴급 대피 공간으로 활용,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폴리스박스 및 안전부스' 4개소 설치**



- 시는 화정광장과 일산호수공원에 안전부스와 경찰순찰 초소가 결합된 폴리스박스(Police box)를, 일산호수공원 내 경찰 진입이 어려운 장미원과 전망광장에 단독형 안전부스 1개소씩 설치
-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민이 이곳으로 대피해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자동으로 문이 잠기며 외부와 격리되며, 내부에서 시민은 비상벨을 통해 고양시 시민안전센터와 통화할 수 있으며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로 연계
- 시는 실효성 있는 시민 신변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양경찰서 및 일산동부경찰서와 TF를 구성, 폴리스박스 설치 적극 추진
- 또 이날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10583

• **일자**
2021. 10. 12.

중랑구, 안심마을보안관 시범운영 시작

주요내용

■ **중랑구는 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하여 시범운영 시작**

* 안심마을보안관은 매년 증가하는 1인가구가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주거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작된 사업

- 시범운영 대상지로는 면목본동 면목역 근처 주택가가 밀집되어있고 1인가구 비율이 높아 주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는 면목본동으로 선정
- 대상지 내에 안심마을보안관 초소가 설치되며 오는 18일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될 예정
- 총 4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이 2인 1조로 주5일 근무하며 방범구역 내 순찰과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각종 생활 안전 대응활동 실시
- 주로 심야시간 차량이동이 어려워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외진곳을 집중 순찰하고 안심이 앱을 활용해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 주민들과 함께 합동순찰 시행
- 또한, 심야시간 구역 내 도로파손, 보안등 미점등, 빗물받이 막힘, 도로상 불법 적치물 방치 등 생활 속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신고하여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방지

•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랑구

• **출처**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840120

• **일자**
2021. 10. 14.

울주소방서,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주요내용

■ **울산 울주소방서는 폐기물 관련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 대상은 폐기물 관련시설 9곳으로 주요 대책은 화재예방 안전상담 및 서한문 방송,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확보, 합동소방훈련 강화 등으로 구성
- 최근 5년간(2016년~ 2020년) 울산에서는 폐기물 관련시설 화재가 총 18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올해 5월에는 울주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완진됐으나 부상자 1명과 6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폐기물 화재는 일반화재보다 진화에 더 많은 인력·장비·시간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종류 다양
- 가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활동을 하므로 폭발이나 감염의 위험에 소방대원의 위험 노출 우려
- 또한, 폐기물 화재는 1차 피해보다 소화수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오염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시민 안전에 위협 초래

• **지자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 **출처**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34311507223835102

• **일자**
2021. 10. 16.

"밤길 안전 확보"…삼척시 LED 로고젝터 추가 설치

주요내용

■ **강원 삼척시는 밤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로고젝터* 추가 설치**

* 로고젝터는 바닥에 문구 등을 투영하는 LED 조명기구로 이미지가 회전하면서 순차적으로 바닥에 이미지를 비추는 일종의 빔프로젝트



- 삼척시는 '여성안심 행복밤길 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밤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4개 지역에 LED 로고젝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
- 문구는 '오늘도 수고 했어요', '우리가 당신곁에 있습니다' 등 안전을 강조한 이미지와 함께 투사 예정
- 앞서 시는 지난 8월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보건소 앞 동두고개 상부와 하부 인도, 소방서 앞 엘리베이트 횡단보도, 도계읍행정복지센터 육교연결 엘리베이트 앞 횡단보도 등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난해부터 모두 18개소에 LED 로고젝터 설치
- 로고젝터를 설치를 통해 구도심과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의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생활안정과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자체**
강원도 삼척시

•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41113

• **일자**
2021. 10. 18.

부산소방 '코로나 청정 119캠페인' 스타트…전국처음

주요내용

■ **부산소방본부는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18일부터 119일간 '코로나19 청정119 DAY 캠페인' 추진**

-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감염예방 릴레이 캠페인'인 환타510(환기타임 하루5번 10분간)과 NO 식중독(식사 중 대화금지)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산소방의 두 번째 캠페인이자 전국 최초 시도
- 청정-119DAY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청정과 소방의 상징인 119를 합쳐 코로나19에도 안전한 119서비스를 상징하며 일상회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9일간 확진자 발생 제로를 목표로 소방공무원 스스로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 부산소방의 예방접종완료자는 현원대비 95%이상으로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4일 이후 소강상태

• **지자체**
부산광역시

• **출처**
세이프타임즈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96

• **일자**
2021. 10. 19.

대구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주요내용

■ **대구시는 광주시 동구 소재 재개발지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이후 시 전역에 산재한 해체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체공사장 전체에 대한 해체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실시
- 해체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하여 인·허가 시 준수사항으로 해체대상 사업지 및 건축물에 대해 가설울타리 조기 설치와 해체 대상 건축물의 훼손 방지 및 경관 개선을 위해 디자인 표식 활용 명시
- 또 해체계획 이행 여부 및 감리의 근무실태 수시 점검, 해체허가(신고) 처리내용 및 관계자 현장 관리실태 확인하고, 해체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자 및 철거업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체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로 안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
- 광주 붕괴사고 이후 정부의 관련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체공사장의 관리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

• **지자체**
대구광역시

• **출처**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267

• **일자**
2021. 10. 19.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2021년 10월 CSRI 재난안전 Brief